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DROWNED DETECTIVE
가제 : 익사한 탐정
저자 : Neil Jordan
출판사: Bloomsbury Hardbacks
발행일: 2016년 2월 25일
분량 : -
장르 : 소설

실종자를 찾는 사립탐정, 20년 전 사라진 딸을 찾아 그를 찾아온 중년의 부부와 기묘한 사건들

언어가 달라 말도 통하지 않는 어느 도시에서 사립 탐정으로 일하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통역과 운전, 조사를 도와주는 프랭크와, 현지인 이슈트반과 함께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누군가를 미행하며 행적을 사진과 같은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지만, 주된 업무는 실종자를 찾는 일이다. 세 사람은 의뢰자가 원하면 위조된 은행 계좌며 가짜 보드카, 심지어 가짜 명품 핸드백의 진위와 출처까지 다 조사해서 찾아내지만 한 가지만은 지키며 일해왔다. 바로 어린 아이를 찾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 이들은 규칙을 깨는 예외적인 사건을 맡게 된다. 탐정 사무실에 어떤 중년 부부가 찾아왔고, 시골에서 왔다고 밝힌 두 사람은 무려 20년 전 흑해의 어느 리조트에서 잃어버린 딸을 찾고 싶다며 폴라로이드 사진을 내민다. 딸의 이름은 페트라. 처음 그들과 면담한 프랭크는 아동 실종 사건은 경찰에 가서 해결하라며 조사를 맡을 수 없다고 거절한다. 하지만 남자는 무언가에 이끌려 사진을 들여다본다. 프랭크의 말에 경찰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하는 두 부부. 남자는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이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격한 분노를 느낀다. 왜 사립탐정을 고용할 생각을 했냐고 묻자, 아이 어머니는 묘한 이야기를 한다. 점성술사를 찾아갔었는데, 페트라가 분명 이 도시 어딘가에 살아 있지만 도망칠 수 없는 작은 방에 갇혀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딸이 매매춘하는 곳에 붙들린 것으로 확신했다. 프랭크는 계속 만류했지만, 남자는 페트라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이 사건을 맡기로 한다. 대체 왜 안 하던 일을 하려 하냐고 묻는 프랭크의 반문에, 남자는 내 딸도 딱 이 또래니까, 라고 씁쓸하게 대답한다. 그런데 페트라를 찾기로 결심한 그 순간, 남자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불길한 일이 시작됐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는다.

사라진 소녀, 어둡고 불안한 도시에서 실종자와 무너지는 자신의 삶을 모두 잡으려는 남자의 고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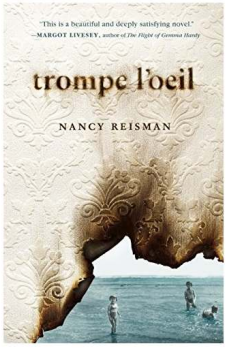
남자가 흉흉한 도시를 누비며 페트라를 찾아 헤매는 동안, 고고학자인 그의 아내 새라는 특별한 유물을 발굴하고 그 정체를 밝히는데 열중한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리 원만하지 않아 각자의 일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삐걱대고, 페트라의 부모가 만났다는 점성술사를 직접 만나는 일부터 시작한 남자에게 첫 날 느낀 직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주변에 연이어 터지기 시작한다. 사라진 소녀, 곁에 있지만 점점 멀어져만 가는 아내와 딸, 통역이 없이는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 하루하루가 불안한 생활 속에 남자는 수많은 의문의 답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

소설가이자 영화 감독인 닐 조던이 집필한 이 소설은, 동유럽 어느 도시에서 실종자들을 찾는 사립탐정과 그의 결혼 생활, 사랑 이야기가 얽힌 독특하고 놀라운 소설이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몹시 불안정하고 폭력이 만연한 동유럽 어느 도시를 배경으로 실종 사건과 더불어 수수께끼 같은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독자들을 사로잡는다.

<저자 소개>

닐 조던(Neil Jordan)은 아일랜드의 가장 유명한 소설가이자 영화 감독으로 1993년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했다. 여러 편의 소설을 발표했으며 데뷔 소설인 ≪Night in Tunisia≫는 '가디언 소설 상(Guardian Fiction Prize)'를 수상했다.

제목 : TROMPE L'OEIL
가제 : 트롱프 뢰유
저자 : Nancy Reisman
출판사: Tin House Books
발행일: 2015년 5월 12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평범한 가족에게 날벼락처럼 찾아온 비극적인 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들

노라 머피와 제임스 머피 부부는 모두가 일명 '반짝반짝 빛나는 커플'이라 칭할 정도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예쁜 세 아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보스턴 도심에 멋진 집이 한 채 있는데다 메사추세츠 해변에 별장까지 가진 머피 가족에게는 부족할 것 하나 없이 오직 달콤한 미래만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온 가족이 로마에서 휴가를 보내던 어느 날, 모두의 삶을 뿌리까지 뒤흔든 일이 발생한다. 겨우 네 살 밖에 안 된 막내 딸 몰리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고 만 것이다. 서둘러 미국에 돌아온 가족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 가지 못하고 해변 별장에 숨어버린다. 그렇게 마음속 빗장을 걸어 잠그고 친척들, 친구들과 거리를 둔 채 자신들의 충격과 슬픔을 삭힌다. 유난히 긴 겨울이 찾아오고 극심한 폭풍우까지 몰아치지만 머피 가족은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몰리의 죽음은 잔잔한 물에 툭 던진 돌처럼, 점점 더 넓은 파형을 그리며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늘 자신만만하고 여유가 넘치던 가족의 삶은 서서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각자 홀로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만 남았다.

세상과 동떨어져 수많을 생각을 하게 된 노라와 제임스는 그 동안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였는지, 그로 인해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또한 얼마나 모순적으로 자리잡았는지 깨닫는다. 몰리의 언니와 오빠는 어린 나이에 동생을 잃은 엄청난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낸다. 몰리 뒤에 태어난 두 아이는 한 번도 만나 본 적 없는 죽은 언니가 가족 전체에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하는 상황을 피부로 느끼면서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진다. 작가는 사고 이후 머피 가족의 삶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추적하면서 부부와 아이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각자의 아픔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여준다.

아이를 잃은 부모, 동생을 잃은 형제, 유령처럼 집안을 떠도는 언니의 흔적에 혼란스러운 동생들

결혼 생활을 되짚어보면서 시작된 부부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남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온갖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직장에서도 불운한 사건들이 이어진다. 가족들은 몰리를 잃은 슬픔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다시 생활에 복귀하려고 하지만 크고 작은 불행들은 연이어 찾아온다. 한 번에 사고로 발생한 슬픔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커지기만 한다. 가족들은 그 슬픔에서 벗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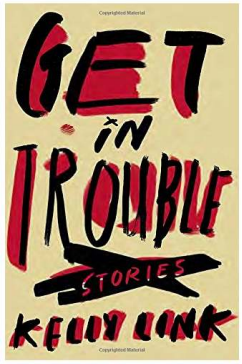
나기보다 그대로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작가는 완벽 그 자체였던 행복한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과 가족 중 한 사람을 잃고 남겨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슬픔과 각자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기까지 겪어야 하는 고통을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시선에서 하나씩, 생생하고 세부적으로 그려내고, 희망과 두려움 속에 담긴 인물들의 심리를 날카롭게 집어낸다. 긴 시간에 걸쳐 아주 조금씩, 가족들이 처음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시적인 묘사와 풍부한 언어 감각으로 그렸다. 깨지고, 치유되고, 다시 깨지기를 반복하는 과정이 뒤엉켜 한 가족의 삶 전체와 심리를 다양한 시각에서 들여다본 작품이다.

<저자 소개>

낸시 레이스만(Nancy Reisman)은 소설가로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터프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시와 소설을 공부했다. 단편 모음집 ≪House Fires≫로 1999년 '아이오와 단편소설 상'을 수상하고 소설 ≪The First Desire≫로 '새뮤얼 골드버그 재단 유대인 소설 상(Samuel Goldberg & Sons Foundation Prize for Jewish Fiction)'을 수상했다.

제목 : GET IN TROUBLE
가제 : 문제가 생겼어
저자 : Kelly Link
출판사: Random House
발행일: 2015년 2월 3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LA 타임스> 베스트셀러, 2015년 2월 아마존 '이달의 책'으로 선정된 기발하고 독특한 단편집

사실적인 이야기에 '마법'이라는 요소를 결합시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켈리 링크는 바로 그런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예외적인 작가임을 이 단편집을 통해 증명해 보인다. 책에 담긴 아홉 편의 이야기들은 생일 파티나 테마 파크, 술집, 우주선 등 수많은 이야기의 배경으로 활용되는 친숙한 장소에서 펼쳐지지만 읽다 보면 풍부한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가능한 세계 속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분명히 익숙한 사건들이지만 전혀 현실 같지 않은 소설 속 기묘한 이야기 속에는 '유머'와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요소가 자리잡고 있다.

각각 특별한 주제를 다룬 아홉 편의 이야기는 하나 같이 묘한 분위기에 마법 혹은 마술이라는 요소가 첨가되어 있다. <피서객>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이야기에는 주류 밀수에 바빠 자신에게는 철저히 무관심한 아버지를 둔 여학생이 등장한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느 시골에 홀로 방치된 이 여학생이 사는 집 바로 뒤에는 피서객들이 한 철 머무르는 작은 집이 한 채 더 있고, 여학생은 아버지의 강요로 이 집의 관리까지 떠맡게 된다. 그런데 길가에 자리한 이 작은 집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뭔가 수상하다. 꿈, 그것도 악몽에나 나올법한 온갖 기계 장치를 가득 설치하고는 몇 가지 요상한 규칙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이상한 무리를 몰래 살피던 여학생은 이상한 요정들의 정체를 알게 된다. <당신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에는 젊은 시절 유명한 영화배우이던 두 남녀가 등장한다. 영화에서처럼 영화 밖에서도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이제 중년이 되었고, 남자는 여자가 진행하는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다. 그런데 옛 연인인 여자는 그에게 유령이 나타난다는 늪에 가서 총으로 쏘아 없애라고 제안하고, 그는 그녀의 요청대로 플로리다의 어느 늪지대로 떠난다. <기원 설화>에서는 이제 황량한 폐허가 된 오즈의 마법사 테마 파크에서 한 여자와 한 때 연인이던(그리고 어쩌다 슈퍼히어로가 된) 남자가 겪는 우울한 사건이 그려지고, <비밀스런 정체>라는 이야기에는 치과 의사와 슈퍼히어로가 같은 호텔에 머무르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려진다. 평소 리얼리티 쇼에 등장하는 단역들에게 유난히 관심이 많던 슈퍼히어로는 이 호텔에서 자신의 조수가 뽑는 공개 오디션을 개최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들, 기괴하고 참신한 이야기 속에 담긴 인간의 진솔한 감정

이야기에 담긴 작가의 상상력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무겁고 풍자적인 주제들이 작가의

무한한 창의력과 만나 독자를 다른 소설들의 한계를 훌쩍 뛰어 넘어 오래도록 잊지 못할 독특한 세계로 데려간다. 살아있는 남자친구에게 질려버린 한 십대 소녀는 친구가 생일 선물로 받은 '로봇 뱀파이어 남자친구 인형'을 빼앗으려고 난동을 부리고 디즈니 인어공주가 들어 앉아있는 바람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수영장에 우연히 슈퍼히어로가 찾아오고, 소심한 게이 커플은 처음으로 자식을 낳게 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등 유령, 뱀파이어, 게이머, 영화배우, 우주인, 부자, 미녀, 슈퍼히어로,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골고루 등장하는 다채로운 이야기는 엉뚱하고 기괴하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는 각각 하나의 소우주를 이루며, 유령의 본질부터 사랑의 의미까지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고민한다. 대부분 무언가에 대한 동경과 집착에 사로 잡힌 등장인물들은 그로 인해 말썽을 만들고 곤란한 일을 겪지만, 각자의 고난과 문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 또한 영리하게 찾아낸다. 그 과정을 보면서 독자는 인간이 가진 수많은 감정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저자 소개>

켈리 링크(Kelly Link)는 미국 태생의 소설가로 공상과학, 판타지, 미스터리, 사실주의를 접목시킨 다양한 소설을 발표했다.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남편과 함께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발표하는 작품마다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세계환상문학상, 네뷸러상, 휴고상, 로커스상,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상 등을 수상했다. 21세기 가장 주목할 만한 미국 작가 20인에 포함되기도 했다.

제목 : THE ASHES OF FIERY WEATHER
가제 : 맹렬한 불꽃이 남긴 잿더미
저자 : Kathleen Donohoe
출판사: Houghton Mifflin Harcourt
발행일: 2016년 봄
분량 : -
장르 : 소설

불이라는 위험을 안고 살던 남자들, 남편, 아들, 형제이던 그들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

가족 중 누군가가 소방관인 여자들, 결국 맹렬한 불꽃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 여성들의 가슴 저미는 삶의 이야기가 기근으로 허덕이던 아일랜드부터 9/11 테러가 일어난 브루클린 어느 지역에서 여섯 세대에 펼쳐진다. 누군가의 엄마, 딸, 아내로 불이라는 위험을 늘 가까이 느끼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불행한 사고를 겪고, 가슴 속을 가득 채워버린 깊은 상처를 딛고 현명하게 회복해가는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자 남모를 고통을 견뎌야 했던 그들 만의 삶이기도 하다.

이야기는 노라가 소방관이던 남편 션의 장례식을 치르는 날부터 시작된다. 아일랜드 출신인 노라는 봄비가 내리는 4월의 어느 따뜻한 오후에 11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장례 미사를 치른다. 친정 식구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 오지도 못하고 오빠 한 명만 겨우 와 있는 성당 안에서, 노라는 이제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자신과 세 아이, 그리고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뱃속의 넷째 아이를 생각한다. 아직 어려 철없기만 한 아이들, 큰 딸 매기와 곧 여덟 살이 되는 에이든 그리고 이제 네 살인 브랜든 모두 션의 투명하고 밝은 파란 눈을 쏙 빼 닮았다. 그리고 그 눈은 성당 한 켠에 조용히 앉아 있는 션의 어머니, 델리아의 눈과도 너무나 닮았다. 노라의 이야기는 델리아의 젊은 시절로 이어지면서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들 션과 딸 에일린과 함께 아일랜드에 살던 델리아. 아직 이혼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던 시대였지만 소방관이던 남편과 갈라선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며 즐겁게 살고 있지만, 아버지처럼 영웅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굳은 결심으로 아들 션이 베트남 전쟁에 자원한 후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시 1971년 10월, 소방관인 아들 마이클과 가까운 곳에 살던 매티 쿨렌으로 바뀐다. 며느리가 외도를 하고 어린 아이들을 남겨둔 채 결국 아들과 이혼을 해버리자 매티는 아들 집으로 들어가 손자들을 돌봐주며 함께 살고 싶었지만 아들이 바라지 않아 안타깝게 옆에서 지켜만 볼 뿐이다. 그녀의 서글픈 이야기는 다시 또 한 명의 여성, 애니 로즈 키건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때는 1918년, 애니는 겨우 세 살과 두 살이던 두 아들 패트릭과 존이 독감으로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엄마로, 딸로, 아내로 화재 사고의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 했던 여섯 세대 여성들의 삶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맨 처음 등장했던 노라와 션의 장녀, 매기의 삶을 조명한다. 션의 장례식이 끝난 지도 몇 년이 지난 1992년, 임신 5개월에 접어든 매기는 할머니인 델리아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 성인도 되기 전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해버린 자신 때문에 늘 얼굴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 엄마와 짜증나는 두 남동생,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막내 여동생과 한 집에서 지내는 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도망치듯 할머니 집으로 와버린 매기는 점점 부풀어오르는 배를 보며 두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그 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와 할머니의 과거를 서서히 알게 된다.

불이 남긴 상처를 안고 사는 마지막 주인공은 케이티. 월드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로 무참히 무너져버린 그 날 아홉 살이던 케이티는 세상의 전부였던, 친딸도 아닌 자신을 너무나 아끼며 키워줬던 엄마를 잃었다. 가족이라고는 엄마 밖에 없었던 어린 소녀는 하루아침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평범한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소녀로 성장한 케이티는 자신을 이 땅에 낳은 친모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과거를 찾아가는 케이티의 여정 속에 앞서 등장한 모든 여성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하나로 엮인다. 아버지, 남편, 형제, 아들을 갑자기 잃은 이 다양한 여성들은 성격도, 사는 곳도, 생활 수준도, 비극을 맞이했을 당시 처한 상황도 모두 달랐다. 소설은 이들의 내면을 한 사람씩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이겨냈는지 보여준다.

<저자 소개>

캐슬린 도노호(Kathleen Donohoe)는 <SNReview>, <Web Conjunctions>, <New York Stories>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했다. '아일랜드 출신 미국 작가와 예술과 협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브룩클린에 살면서 다음 소설을 준비 중이다.

NON-FICTION

제목 : BIG HISTORY AND THE FUTURE OF HUMANITY
가제 : 거대사와 인류의 미래
저자 : Fred Spier
출판사: Wiley-Blackwell
발행일: 2015년 4월 24일(2판)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역사

인류 역사를 빅뱅에서 시작된 우주의 탄생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는 거대사, 그 의미와 필요성

우주의 탄생부터 지구에 생명이 살게 된 과정에 관한 우주의 역사, 인류의 과거를 그 거대한 틀 속에서 파악하는 '거대사'는 과거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인류가 가까운 미래에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다. 2010년 초판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우주의 틀 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통합한 거대사를 소개하고, 크게는 은하단부터 작게는 아원자 입자까지 포괄하는 복잡성 연구에 참신한 접근 방식을 제시했던 이 책은, 인간 행동의 출현과 가치 체계의 발달, 거대사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의 패턴 등 그 동안 학계에서 다루어진 새로운 핵심 개념을 추가한 제 2판으로 완성됐다.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들은 모두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겨났을까? 데이비드 크리스천이라는 한 역사가가 새로 만들어낸 용어인 '거대사'는 인류의 과거를 빅뱅에서 시작되는 자연사 전체의 일부로 바라보고 바로 이 의문에 현대 과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답을 제공하려는 학문이다. 거대사는 인류의 과거를 뿌리부터 새롭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류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정하도록 이끌어준다. 더불어 거대사를 이해하면 과학적인 지식 전체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확립할 수 있다.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된다. 일부 대학에서 다루어지며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생소한 학문인 거대사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으로 시작하여, 1장에서는 거대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핵심 주제를 요약하여 설명한다. 2장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보다 큰 틀에서 분석하는 이론적 접근 방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세히 살펴본다. 더불어 미국의 천체물리학자 에릭 체이슨의 연구 내용과 역사 해석을 위해 그 동안 제안된 다양한 이론을 정리해본다. 과거의 잔재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현재의 틀 속에 한정되며, 이는 곧 무언가가 처음 생겨나는 과정을 알려면 반드시 거대사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오늘날 개개인의 복잡성과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복잡성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요소들을 단서로 삼아 우주의 발생과 진화를 추적해본다. 거대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만물의 기원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대사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한 걸음 더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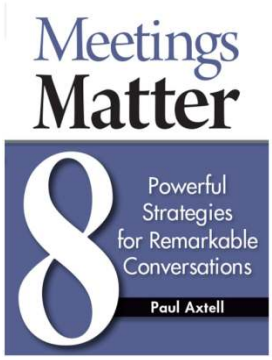
인류의 과거를 새롭게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를 참신한 시각으로 예견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

이어 4장에서는 우주 속에서 지구의 '이웃' 행성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각각의 복잡한 특성들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5장은 지구에 초점을 맞추고, 생명과 에너지, 복잡성의 발생 과정을 이야기한다. 지구 바깥에서 끌어들인 에너지의 출현, 생물계에서 먹이사슬의 첫 등장, 생명체에서 뇌와 의식의 발생, 생물학적 복잡성이 확대된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6장은 인류의 초기 역사로 다시 범위를 좁혀 거대사에서 발달한 복잡성 중에서도 그 수준이 가장 높은, 즉 가장 복잡한 특성을 지닌 인류의 출현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무엇이 인류를 그 어떤 존재와도 같지 않은 존재로 만들었는지, 에너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회적 협동 생활과 도구의 사용, 뇌의 발달, 불을 통제하는 기술, 이동 생활, 종교 등 인류의 특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진다. 7장에서는 보다 최근의 인류 역사를 중점적으로 파헤친다. 가장 복잡한 특성을 지닌 존재를 넘어서 더욱 발달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농경 혁명, 초기 국가의 형성과 거대 국가의 발달, 단계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고찰한다. 마지막 8장은 앞으로 인류가 맞이하게 될 미래를 주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우주의 미래를 먼저 설명하고, 지구와 지구상 생명체의 미래, 인류의 미래, 물질과 에너지의 가용성, 핵심 자원의 고갈과 엔트로피 증가가 낳게 될 영향,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 가능성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거대사를 통해 역사상에서 발생한 굵직한 패턴을 파악하여 신선한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프레드 스피어(Fred Spier)는 암스테르담 대학교와 에이트호반 기술대학에서 거대사를 가르치고 있다. '국제 거대사협회'의 창립회원이자 협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The Structure of Big History: From the Big Bang until Today≫(1996)가 있다.

제목 : MEETINGS MATTER
가제 : 회의, 무조건 중요하다
저자 : Paul Axtell
출판사: Jackson Creek Pr
발행일: 2015년 1월 20일
분량 : 360 페이지
장르 : 경영



아무 소득 없이 허비되는 시간으로만 여겨지는 회의를 효과적인 업무의 핵심으로 바꾸는 전략

회의는 수백만 직장인들에게 너무나 귀찮고 싫은 일이 되었다. 회의가 아무 의미 없이 허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발 나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논의하는 내용 말이야, 동의할 수가 없어. 근데 이미 저렇게 난리들이니 내가 어쩔 수 있나, 입 다무는 수밖에." "진짜 의논해야 할 문제는 아무도 꺼내지를 않는군." "주제 없는 회의가 또 열렸네." "같은 내용을 도대체 몇 번째 되풀이하는 건지, 결론은 아무 것도 없잖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회의를 하느라 흘러가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회의에서 제대로 된 성과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30년 이상 수많은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활약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회의는 중요한 과정이고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핵심 단계이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이상적인 회의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로 '대화의 기술'을 꼽는다. 즉 원만한 대화가 이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고, 회의를 대하는 태도도 바꾸어야 한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식, 다음 회의가 진행되기 전, 회의와 회의 사이의 시간 활용 방식도 모두 바꾸어야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부분의 회사가 겪고 있는 비능률적인 회의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덟 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책 전반에 걸쳐 이 전략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회의를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아까운 시간이 아닌 업무에 가장 필요한 시간,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업무 능률 향상, 사업의 성공에 꼭 필요한 회의로 만들 수 있는 여덟 가지 핵심 전략

효과적인 회의를 만드는 첫 번째 전략은 회의를 보는 시각을 바꾸기로 스스로가 결심하는 것이다. 회의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모든 변화의 바탕이 된다. 무슨 일이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유익한 결과를 얻을 기회가 찾아왔을 때 거머쥘 수 있다. 저자는 이것이 회의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적용되는 전략이며, 어떤 일이 잘 풀리게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효율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관점에 스스로 힘을 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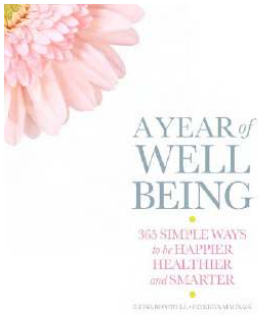
넣을 줄 안다. 두 번째 전략은 효과적인 대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회의는 대화로 이루어지는 만큼, 말을 잘 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 능력과 사려 깊은 대화를 할 줄 아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전략은 서로 기댈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회의를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기회로 생각하고, 함께 참석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 남들과 협력하는 능력은 상대방의 관계에 크게 좌우된다.

네 번째 전략은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일과 꼭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고 정하는 것이다. 회의 주제는 최대한 줄이고, 참석 인원도 최소화해야 한다. 꼭 논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고민해야 한다. 다섯 번째 전략은 계획적인 대화다. 대부분의 회사가 회의에서 겪는 문제의 큰 부분은 대화가 중구난방 이어질 뿐 명료한 논의 단계가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저자는 이를 위해 대화 주제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 설계 방법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여섯 번째 전략은 회의에서 무조건 다음 세 가지를 얻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결과를 내는 것,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 회의를 통해 직원 개개인과 조직 전체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바로 이 세 가지이다. 일곱 번째 전략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다. 참석하는 회의마다 '내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구경꾼처럼 방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회의 주제와 자신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부분이 될 만한 내용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개입해야 한다. 마지막 여덟 번째 전략은 사람들과 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평소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면 회의는 자연스레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그룹 전체의 관계는 그만큼 더 돈독해진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룹은 더 큰 미래를 꿈꾸고,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저자는 다양한 회사에서 일어난 실례와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하면서 어떤 회의든 주제를 명확히 정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게끔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회의가 분명 업무에 중요한 과정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고민인 회사 경영자, 관리자는 물론이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까지 누구나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폴 액스텔(Paul Axtell)은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부터 대학교,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 효율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회의 설계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



제목 : A YEAR OF WELLBEING
가제 : 365일 건강하게
저자 : Ilona Boniwell, Patricia MacNair
출판사: Elwin Street Productions
발행일: -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사계절을 테마로 일상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작은 변화의 중요성

'365일 건강하게'는 더욱 건강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1년 365일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식들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책이다. 건강과 심리학 분야 전문가인 두 저자는 심도 깊은 연구와 건강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는 효과가 검증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모두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이 책에 모았다. 삶의 물리적, 화학적, 정서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수많은 노력 덕분이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믿을 수 있는 정보, 즉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독특한 존재이고, 살면서 각자가 하는 선택에 따라 삶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가령, 면역력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정서적인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기로 선택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확대된다. 또 이미 깊이 뿌리내린 습관도 아주 조금씩, 꾸준히 바꾸고 개선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두 저자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노력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열쇠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몸이 원하는 대로 건강해지도록, 그 내재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생활의 바탕이 되고 일상으로 자리잡으면 가족과 친구, 멀리는 지역 사회에도 그 효과가 파급되어 전해진다.

책은 사계절을 테마로 총 네 부분으로 나뉜다. 각 부분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조언들이 다섯 가지 소주제에 따라 제시된다. 그 첫 번째는 몸에 좋은 요리와 주스 만드는 법으로, 제철 과일과 채소를 사용하여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요리와 몸에 생기와 에너지를 불어 넣어 줄 주스 만드는 방법들이 소개된다. 두 번째는 일상에 작은 영감을 불어 넣어 줄 문구들로,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건강과 행복에 대해 언급한 인상적인 말들을 소개한다. 세 번째는 휴식하고 긴장을 푸는 방법으로 심호흡과 함께 하는 다양한 운동법과 잔뜩 긴장한 신경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네 번째는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늘리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들을 소개한다. 다섯 번째는 뇌 훈련 법이다. 재미있는 퍼즐과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풀면서 뇌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65일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과 다양한 요리법, 운동법,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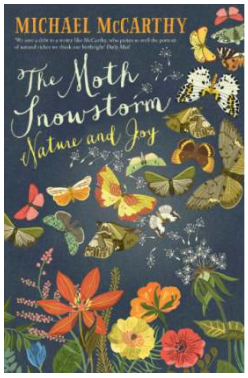
두 저자는 책 전반을 통해 일상 생활의 아주 사소한 변화가 삶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습관이 주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어떤 습관을 포기하거나 그만 두기로 결심한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긍정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더불어 사람은 다 똑같지 않으므로 생활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특정한 결과를 곧바로 얻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스로 시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보낸 날들, 앞으로 만들어 갈 날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화에 스스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먹는 음식부터 신체 활동, 여가 시간 등 우리의 하루를 구성하는 수많은 선택의 시점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결정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지침서다.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심리학적, 의학적 정보들이 가득한 책이다.

<저자 소개>

일로나 보니웰(Ilona Boniwell) 박사는 이스트런던 대학교에서 긍정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유럽 긍정심리학 네트워크'를 창설하고 첫 대표를 역임했으며 BBC 프로그램 'The Happiness Formula'에 컨설턴트로 참여했다. 저서로는 ≪The Happiness Equation≫, ≪Positive Psychology in a Nutshell≫ 등이 있다.

패트리샤 맥네어(Patricia MacNair) 박사는 브리스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의사로 일하면서 의학전문 기자로도 활동 중이다. BBC 라디오, BBC 웹사이트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 의학협회지'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The Cancer Tales Workbook≫, ≪Irritable Bowel Syndrome for Dummies≫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THE MOTH SNOWSTORM: NATURE AND JOY
가제 : 나방 눈보라, 자연과 즐거움
저자 : Michael McCarthy
출판사: John Murray
발행일: 2015년 5월 2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과학, 에세이



자연에 대한 뿌리 깊은 사랑과 열정, 자연이 주는 즐거움과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선물은 아주 많지만, 그 중 가장 큰 선물은 '즐거움'인지도 모른다. 야생동물, 광대한 자연의 풍경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강렬한 기쁨을 주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더불어 인간은 자연과의 끊어낼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왠지 모를 평화로움도 느낄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자연과 떨어져서는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환경을 주제로 그동안 많은 책을 쓴 저자는 평생 자연을 관찰하면서 차곡차곡 쌓은 기억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며 우리 주변의 세상과 자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가 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가 어떻게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갔는지, 그 이야기 그 자체도 놀랍고 감동적이며,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연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진다.

윈스턴 처칠이 영국 국무총리로서의 명성을 점차 잃어가고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철수를 결정했던 1954년 여름에 일어난 일이었다. 저자가 일곱 살, 형 존의 나이는 여덟 살이던 그 해 저자의 어머니는 마흔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렸다. 사우스 햄프턴과 뉴욕을 오가던 '퀸 메리'호의 통신사였던 아버지가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미 서서히 진행되던 변화였다. 아버지는 석 달에 한 번씩 집에 돌아와 2주간 머무르고 다시 떠났다.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남편으로나 아버지로나 사랑을 할 줄 몰랐고 수시로 나쁜 성질이 고개를 드는 사람이었다. 저자의 이모와 이모부가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많이 도왔지만 1953년, 두 사람이 친구들과 미국으로 몇 달간 여행을 떠난 사이 어머니의 정신병은 크게 악화되고 말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가 3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고, 몇 시간씩 혼자 돌아다니는 일도 잦았다. 결국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모와 살게 된 저자는 잘 가꿔진 정원과 집 가까이 야생 식물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식물을 벗삼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 당시엔 너무 어려서 몰랐지만, 한참 지난 후 생각하면 치유 효과가 뛰어난 식물들과 자연이 당시 저자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었다.

힘든 시간을 자연의 힘으로 이겨낸 기억, 놀라운 변화들과 아름다운 자연의 치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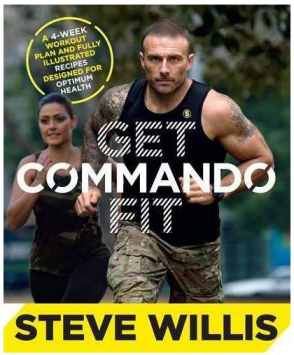
저자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즐거움'에 대해 조금은 색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자연 파괴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현대 사회에서 자연이 내세운 일종의 방어 기술이라는 생각이다. 더불어

저자는 한국의 아름다운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비롯해 런던과 잉글랜드에서 어느 날부터 개체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한 참새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자연이 준 우리의 서식지를 서서히 파괴하는 모습을 생생히 전하고 그런 행위가 결국 인간의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고려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를 안타까워한다. 이 책은 인간과 자연의 내재적 연결고리가 왜 존재하는지 심리학적으로 단계별 세세한 분석을 내놓지 않는다. 또 일상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 가령 첫 눈이 내리고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났던 도요새가 돌아오는 일처럼 별 것 아닌 자연의 현상들도 인간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과학적인 이론을 내세워 지루하게 설명하지도 않는다. 대신 저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자연을 파괴하면 결국 우리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파괴하는 것이고 독자들 역시 자연스레 확신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

<저자 소개>

마이클 맥카시(Michael McCarthy)는 <타임>지에 환경에 관한 글을 기고하기 시작하면서 환경, 자연에 대한 수많은 글을 쓰고 많은 상을 받았다. <인디펜던트>지에서도 환경 부문 편집장을 지냈다. '영국 언론상'을 비롯해 조류 보호 활동의 업적을 인정받아 왕립학회가 수여하는 메달을 받았고, 영국 조류재단의 'Dilys Breeze Medal'을 수상했다. 2008년 발표한 저서 ≪Say Goodbye To The Cuckoo≫는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제목 : GET COMMANDO FIT
가제 : 코만도 건강법
저자 : Steve Willis
출판사: Hachette Australia
발행일: 2015년 1월 27일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건강



굳건한 정신력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 그 시작을 열어주는 운동과 영양 지침서

호주판 '비기스트 루저'에서 여섯 시즌 동안 트레이너로 출연하며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피트니스 전문가로 인정 받는 스티브 윌리스. 특공대 출신인 그는 항상 군복 바지와 검정색 상의에 짙은 색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코만도'로 불린다. 항상 "변명은 없다!"를 외치며 체중을 줄이려는 사람들,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누구보다 엄격하고 혹독하게 관리하는 인물로 명성이 자자한 그가 외모도 기분도 최상으로 끌어올려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을 이 책에서 전한다. 그가 전하는 건강과 행복의 핵심은 바로 정신력이다. 적절한 몸매를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정신력을 키워야 한다고 믿는 저자는 건강한 생활방식을 찾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함께 흐트러질 수 있는 마음을 독하게 다잡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사진으로 상세히 설명한 운동법과 4주 일정의 피트니스 프로그램, 건강에 유익한 각종 요리까지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책으로, 힘들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과 행복을 얻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며 첫 부분에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운동과 달리, 고강도 운동과 자연스러우면서도 특정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움직임'이 이 책이 소개하는 운동의 특징이다. 또한 모든 운동은 근력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심혈관계 건강을 증대시키는 것을 공통된 목적으로 삼는다. 저자가 'GCF 프로그램'으로 명명한 이 특별한 프로그램은 난이도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류된다. 저자는 운동 방법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각자가 생각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운동은 몇 가지뿐이며, 바로 그 운동을 찾아서 핑계나 변명 없이 꾸준히 해낼 때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운동 방법과 함께 운동에 임하는 마음가짐, 용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기구와 보조 용품, 운동법 설명에 자주 등장하는 어려운 용어 설명까지 친절하게 제시되어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도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이너가 소개하는 운동 방법과 건강한 식생활, 다양한 요리법

준비운동까지 포함된 이 모든 준비 단계가 완료되면, 이제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된다. 저자는 '자세, 기술, 운동 범위' 이 세 가지를 모든 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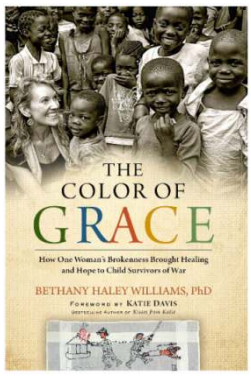
스스로 엄격히 노력하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자연스러운 속도를 찾아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모든 운동은 동작 순서에 따라 저자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 올바른 자세와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맛있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메뉴, 요리법이 소개된다. 저자는 건강한 삶이 훌륭한 운동 계획만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영양 전문가와 외식 업계에서 20년 넘는 경력을 쌓은 요리사가 체계적으로 마련한 식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책에 실린 모든 요리는 양질의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먼저 각 영양소의 중요성과 해당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올바른 식품과 부적절한 식품을 소개하는 한편 자연식품, 열량 등 영양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개념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이어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간식으로 먹으면 좋은 요리와 건강한 드레싱을 만드는 법과 함께 제시한다. 바쁘고 정신 없는 일상에 뭔가 변화를 주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자극제가 될 만한 유익한 책이다.

<저자 소개>

스티브 윌리스(Steve Willis)는 호주 특수부대 출신으로 운동 코치로 활동 중이다. 운동과 건강에 관한 TV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한 경력이 있으며 <바디 + 소울> 매거진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다. 다양한 운동 기구와 장비를 직접 제작하는 일도 하고 있다.

제목 : COLOR OF GRACE
가제 : 은총의 색깔
저자 : Bethany Haley Williams
출판사: Howard Books
발행일: 2015년 3월 3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전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아프리카 어린이들, 그 아이들을 만나 구원을 찾은 여성의 이야기

미국 교외 지역에 살던 중산층 백인 여성. 그녀가 전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아프리카 아이들과 만나 산산조각 난 삶에서 구원을 찾고 싶다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 심리학자인 저자는 불행한 결혼 생활과 힘든 기억들로 괴로워하던 자신이 위험천만한 전쟁 지역에서 소년병들, 성 노예가 되어버린 어린 소녀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치유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살던 저자와 아프리카 아이들은 고통과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삶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채 처음 만났고, 서로에게 기대며 함께 상처를 치유했다. 구호활동 후 전쟁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술 치료, 표현 치료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재활 치료와 심리적 회복을 돕는 비영리 단체 '익사일 인터네셔널'을 설립한 저자는 놀라움, 악, 생존, 춤, 고문, 구원, 모험, 은총이 모두 담긴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힘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사랑과 은총은 너무도 아름다워 하나의 색깔로 정의할 수 없고 형형색색 다양한 색깔과 경이로움으로 다가왔다고 전한다. 아이들이 전쟁 때문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참혹한 일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일지도 모르지만, 저자는 끝까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그 아이들의 삶에 경의를 표하는 길이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우간다 반군의 손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처참히 짓밟혀 불구가 되고 목숨을 잃는 장면을 강제로 봐야 했던 솔로몬. "애들 잘 키워놔, 나중에 와서 데려갈 테니까." 어린 형제들을 두고 자신만 잡아가던 반군들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솔로몬과 같은 수십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끌려가 순수함을 모두 빼앗기고 매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억지해 하면서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을 뿐, 아이들은 그보다 더 끔찍하고 믿기 힘든 일들이 연이어 겪어야 했다. 저자는 아이들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법을 알아야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갖고, 용서의 힘을 인정하고,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구해왔고, 그 험난하지만 소중한 경험들을 이 책에 담았다.

상상하기 힘든 처참한 과거를 안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선사하며 은총을 발견한 과

정

먼저 굴곡진 결혼 생활과 이혼, 가슴 아픈 사건들을 비롯해 저자 자신의 삶에 찾아온 위기와 깨어진 희망을 큰 용기를 내어 독자들에게 털어놓고, 한 줄기 희망이라도 얻고 싶은 심정에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한 후 아프리카 단기 선교활동을 선택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찢기고 분열된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 부모를 잃고 온갖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아이들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 이야기와, 자신도 깨닫지 못한 사이 내면에 찾아온 변화, 그리고 처참한 상황에서 목격한 구원의 힘과 신의 은총을 전한다. 자신도 도와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한 저자는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전쟁 피해아동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을 설계하기에 이른다.

저자는 불안감과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한 상태에서도 있는 힘껏 아이들을 도우며 함께 생존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은 우리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고, 나의 아픔만 생각하느라 외면하고 싶다고 느낄 수도 있는 머나먼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잔인한 현실과 용감히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책이다. 아프고 고단한 사람들의 힘겨운 삶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진한 교훈을 가르쳐준다.

<저자 소개>

베다니 헤일리 윌리엄스(Bethany Haley Williams)는 임상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심리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UN, '글로벌 트라우마 회복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 단체와 더불어 전쟁 피해 아동 구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